

최강희 “이젠 액션 꿈나무로 불리줘요”

27일 첫 방송 SBS 월화극 ‘굿캐스팅’ 주연 ‘4차원 소녀’서 25년만에 액션 연기 도전
다혈질 국정원 요원으로 변신 주목

“여자들이 통쾌하게 싸워주고 이겨주고 승리해주고 같이 울어주니까 시청자들도 대리만족하고 응원해주시길 바랍니다.” 배우 최강희(43)가 데뷔 25년 만에 액션 연기에 도전한다. 그에게 따라다닌던 ‘4차원 소녀’ 꼬리표는 잠시 떼어두고 ‘결크러시’로 거듭난다.

SBS TV 새 월화극 ‘굿캐스팅’은 국정원에서 책상만 지키던 여자들이 우연히 현장 요원으로 차출된 뒤 초유의 위장 잡입을 하며 벌어지는 좌충우돌을 그린 작품이다.

최강희는 전설의 ‘블랙 요원’이었으나 작전 수행 중 부하직원을 잃고 현장 업무에서 배제된 백관미를 연기한다.

최강희는 22일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제작발표회에서 “극 중 상황이랑 제 상황이 비슷했던 것 같다. 작품이 어긋나고 밀리던 중 대본을 읽게 됐는데 너무 재밌고 시원했다”며 “믿기지 않을 정도로 고마웠던 이야기였다”라고 출연 계기를 밝혔다.

그는 “밤새도록 액션신을 찍은 적도 있는데 졸지도 않고 너무 재밌었다”며 “저를 액션 꿈나무라 불려 달라고 했다. 드라마가 끝나고도 액션 연기에 도전하고 싶다”며 웃었다.

이어 “잔미처럼 욱하거나 화가 많지는 않지만, 연기하며 스트레스가 해소됐다. 실컷 울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욱했다”면서 “어떤 감동을 굳이 느낄 필요도 없고 굳이 웃으려 애쓸 필요도 없으실 것 같다. 누워서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배우 이상엽(37)은 학벌, 집안, 외모를 완벽히 갖춘 회사 대표이사 윤석호를 연기한다.

그는 “최강희씨 상대역이라 해서 다 안 읽고 출연을 결정했다”면서도 “좋은 대본을 보고 기분이 좋았다”고 말했다.

이어 “외로운 사람들이 모여 거대 음모와 맞서 싸우는 이야기라 시청자들이 통쾌함과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으실 것 같다”는 바람을 전했다.

출연을 맡은 최영훈 PD는 “‘굿캐스팅’은 유쾌한 웃음, 상쾌한 로맨스, 통쾌한 액션이 있는 드라마”라며 “가장 중요한 가치는 어려울수록 웃으며 넘기는 선함과 유쾌함이라 생각한다. 그 가치를 저희 드라마를 통해 전달하고 싶었다”고 했다. 오는 27일 밤 9시 40분 첫 방송. /연합뉴스



‘삼시세끼’ 차승원·유해진·손호준 다시 뭉친다

tvN ‘어촌편5’ 다음달 1일 방송

tvN 예능 ‘삼시세끼 어촌편5’가 다음 달 1일 시청자와 만난다.

22일 tvN에 따르면 ‘삼시세끼 어촌편5’에는 2015년 ‘삼시세끼 어촌편 1.2’와 2016년 ‘삼시세끼 고창편’에서 호흡을 맞춘 차승원과 유해진, 손호준이 다시 출연한다.

이들은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마당에서 부침개를 부쳐 먹는 등 소소한 재미로 ‘삼시세끼’만의 힐링을 선사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공동 연출을 맡은 이정원 PD는 “차승원, 유해진, 손호준이 함께하는 삼 생활은 5년 만이지만, 이 순간을 기다린 듯 첫 녹화부터 완벽하게 적응하며 가족 같은 재미를 선보였다”라고 전했다.

이어 “부족한 식재료로 어떻게든 한 끼 밥상을 차리는 차승원, 직접 바다로 낚시를 나간 유해진, 막내 역할 만렙의 손호준까지, 세 사람 모두 촬영 내내 웃음을 잃지 않고 생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달 1일 밤 9시 10분 첫 방송. /연합뉴스

SBS ‘녹두꽃’, 뉴욕 TV&필름 페스티벌 동상

동학농민혁명 소재 휴먼 드라마

올해 뉴욕 TV&필름 페스티벌 어워즈에서 지난해 방송된 SBS TV ‘녹두꽃’이 미니시리즈 부문 동상을 받았다.

SBS에 따르면 ‘녹두꽃’은 동학 농민들의 외침을 통해 ‘사람답게 사는 것’에 대한 목직한 울림을 던져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드라마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농민군과 토벌대로 갈라져 싸워야 했던 이복형제의 파란만장한 휴먼스토리를 그린 작품으로, ‘정도전’의 정현민 작가가 집필했다.

뉴욕 TV&필름 페스티벌은 1957년부터 시작된 유서 깊은 시상식이다. 뉴스, 다큐멘터리, 예능 프로그램 등 16개 부문에 걸쳐 창의적인 프로그램에 시상한다. /연합뉴스

이 호텔에는 어떤 괴담이 있을까

공포 영화 ‘호텔 레이크’ 29일 개봉

“호텔에서는 절대 위를 올려다보지 마십시오.” “405호는 일반 손님이 묵는 방이 아닙니다. 절대 들어가지 마십시오.” 온라인에 떠도는 가상의 호텔 괴담 일부다. 읽는 것만으로 이 호텔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궁금하게 만든다.

오는 29일 개봉하는 영화 ‘호텔 레이크’는 이런 괴담 형식을 차용해 궁금증을 자극하는 공포 영화다.

엄마가 죽은 지 5년이 된 어느 날 유미(이세영 분)는 아버지가 다른 어린 동생 지유를 떠맡게 된다. 지유를 직접 키울 수 없는 유미는 동생을 맡기기 위해 엄마 친구 경선(박지영)이 운영하는 레이크 호텔을 찾아가간다.

가는 길부터 불길한 기운이 맴돌지만, 호텔에 도착하니 경선은 자매를 반겨준다. 유미는 그런 경선이 어딘가 불편하고, 들어가서는 안 되는 방 405호와 이 호텔에서 죽은 엄마의 기억 때문에 더욱 혼란스럽다.

손님이 한 명도 없는 호텔의 유일한 직원이라고는 메이드 예린(박호주) 뿐. 그러나 그는 공허한 눈빛을 하고 술에 항상 취한 채 이상한 말을 늘어놓아 유미를 더욱 불안하게 한다. 경선은 동생을 맡기고 떠나려는 유미를 붙잡고, 호텔을 벗어나려 하던 유미는 동생 지유가 실종됐다는 연락을 받는다. 동생



영화 ‘호텔 레이크’

을 찾기 위해 호텔로 돌아온 유미 앞에 호텔의 비밀이 드러난다.

영화는 시종일관 불길하고 으스스한 레이크 호텔의 비밀이 드러나는 과정을 그리지만, 미스터리보다는 공포에 더 무게를 둔다.

주인공들이 모두 여성인 만큼 여배우들 연기 앙상블이 불 만하다. 유미를 연기한 이세영은 공포에 떠는 모습뿐 아니라 엄마를 향한 원망과 죄책감 그리고 동생을 지키려는 강인함까지를 모두 표현한다. 박지영은 친절한 이모의 모습 이던 초반부터 급변하는 후반부까지 영화를 무겁게 이끌어가고, 박호주가 연기한 예린은 특유의 눈빛과 대사로 극의 긴장감을 높인다. /연합뉴스

폴킴 역시 ‘음원강자’ ... ‘우리 만남이’ 4개 차트 1위

싱어송라이터 폴킴(32)이 신곡으로 또다시 차트 정상을 휩쓸며 ‘음원 강자’ 면모를 재확인했다.

폴킴이 22일 오후 6시 발매한 정규 2집 두 번째 파트 ‘마음, 돌’ 타이틀곡 ‘우리 만남이’는 23일 오전 9시 기준 멜론, 지니, 벅스, 소리바다 실시간 음원 차트 1위를 차지했다.

타이틀곡뿐 아니라 ‘히어로’ (Hero), ‘카톡’, ‘홀리데이’ (HOLIDAY), ‘나의 봄의 이유’ 등 앨범 수록곡들도 차트 상위권에 올랐다. ‘우리 만남이’는 어쿠스틱 피아노와 스트링, 관악기가 폴킴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조화를 이루는 ‘폴킴표 발라드’다. 폴킴이 작사, 작곡했다.

‘마음, 돌’은 그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정규 2집 첫 파트 ‘마음, 하나’의 후속 앨범이다.

폴킴은 ‘너를 만나’, ‘모든 날, 모든 순간’, ‘안



폴킴 ‘마음, 돌’ 앨범 커버

녕’ 등을 히트시키며 가요계의 대표적 음원 강자로 자리 잡았다. /연합뉴스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p style="text-align: center;">퀵 타로카드</p> <p>지하철 금남로57가역 4번출구앞(신한은행앞) 궁합, 사주, 신수, 취직운, 택일, 작명, 운수판단, 인생상담 타로마스터 ☎ 010-3640-6429</p>	<p style="text-align: center;">신신예술의집</p> <p>동구 궁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 062)222-1936</p>	<p style="text-align: center;">만福당</p> <p>동구 제봉로 184번길 5-9 (대인시장내) 골동품, 석물, 도자기, 민속품, 고가구 미술품 매도·매입합니다. 찾는 물품을 찾아드립니다. ☎ 062)959-0680, 010-4602-0680</p>	<p style="text-align: center;">동양철학원</p> <p>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함. ☎ 062)224-7687, 010-2611-7687</p>
<p style="text-align: center;">국수나무 광주용봉점 (비엔날레)</p> <p>북구 용봉동 1091-4(M-타워KB국민은행건물) 모든 메뉴 포장 및 배달가능 직접 전화 및 배달주문(배달의민족, 오기요) ☎ 062)526-5475, 010-8621-5959</p>	<p style="text-align: center;">남문냉동</p> <p>나주시 이창동 풍물시장2길 5-4 저온저장고제작수리, 영업용 냉장·냉동수리 에어컨 전문설치 ☎ 061)333-2779, 010-3610-2779</p>	<p style="text-align: center;">무크광주세정점</p> <p>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2층 258호 화사한 불 신상품 대량인고 남·여 20~40%세일 (일부품목제외) ☎ 062)370-9258</p>	<p style="text-align: center;">한성꽃화원</p> <p>나주시 나루로71 (송월동 LG화학앞) 근조·축하화환, 동·서양란, 관엽전국배달 ☎ 061)334-3200, 010-3623-6921</p>
<p style="text-align: center;">김동일쉐프</p> <p>동구 지호로42(지산2동사무소앞마트앞) 갈비해장국, 갈비탕, 육개장, 곰창전골, 무침조림 예약주문 각종모인환영 ☎ 062)228-1975, 010-9622-8938</p>	<p style="text-align: center;">우리뷔페</p> <p>남구 지석동 73-5번지 (포충사와 대충동사무소 중간지점) 2월17일 오픈!! 정성과 새로운 맛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회사·단체 강부환영) ☎ 062)381-0066, 010-3085-0140</p>	<p style="text-align: center;">개성전통한방삼계탕</p> <p>서구 치평동 케이원하이빌 1층 삼계탕전문점 포장가능합니다. ☎ 062)383-3454, 010-2106-0424</p>	<p style="text-align: center;">천상일월태주명</p> <p>나주시 남의동33-3번지 남고문뒤편 중합, 사주, 신수, 택일 전문점 ☎ 010-2617-3635</p>
<p style="text-align: center;">광명천막기업</p> <p>북구 천변우로 285-1(누문동) 패션어닝, 철구조물창고, 차광막, 일반포장 파라솔, 자바라천막, 차호루 ☎ 062)526-6153, 010-6646-7282</p>	<p style="text-align: center;">유가네한우곰탕 광주대인점</p> <p>동구 대인동 324-18번지 30년전통 깊고 진한 곰탕의 맛! 한우맑은곰탕, 한우사골순대국, 한우사골설렁탕 한우육수 육개장 '모든메뉴 포장가능' ☎ 062)464-1425</p>	<p style="text-align: center;">연아불교용품</p> <p>전남 나주시 영산포로261-1 (영산포구역전앞) 불교용품, 무속용품 모든것 조상웃. 양초 판매 ☎ 061)334-0088</p>	<p style="text-align: center;">남악장례식장</p> <p>전남 무안군 심향읍 남악로 250번길 59-30 시그니티 요양병원 1층 최신시설 완벽 친절·신용·분위 각종장례용품업자제공 ☎ 061)285-0444</p>
<p style="text-align: center;">자연모기발안병원헤어샵</p> <p>동구 롯데백화점옆, 금남전자상가 5층 자연모남여 기발 맞춤 전문! 중형기발을 자연모신상품으로 중모 리폼·대어가능 ☎ 062)227-8084, 010-3608-2943</p>	<p style="text-align: center;">대성각 중화반점</p> <p>동구 무등로306-6 (구시청뒤 도로변) 각종 전통 중화요리 전문점 전화주문시 신속배달 ☎ 062)430-5342</p>	<p style="text-align: center;">초대화랑</p> <p>동구 궁동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p>	<p style="text-align: center;">박당화랑</p> <p>동구 궁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 및 감정 대표 박한승 ☎ 062)222-6866</p>